



SUNG KYUNKWAN UNIVERSITY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보도자료

담당

참조

참조

[자료문의]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설준영 (02-760-0788, 010-5091-0400)

“경학(經學)에서 철학으로 그리고 어디로?” - 동아시아, 근대 전환기 학술의 양상 -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015년 동계 학술회의 개최”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에서는 2015년 1월 23일(금)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512호에서 지난 2014년도에 기획한 <경학(經學)에서 철학으로 그리고 어디로? - 동아시아, 근대 전환기 학술의 양상>이라는 주제의 총 3회에 걸친 학술회의의 마지막 장을 연다.

지난 해 공자 탄생 2565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학술회의의 개막 연설에서 중국공산당의 시진핑 [習近平] 총서기는 마르크스주의와 유가철학의 유기적 결합을 강조했다. 이른 바 ‘중국의 꿈’이라 불리는 대동사회 건설이라는 목표는 차치하더라도 전통 유가철학과 마르크스주의의 결합은 중국 사상계의 중심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시도는 경사자집(經史子集)의 틀 속에서 연구되던 사상, 즉 경학의 영역이 경전 속으로 수렴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분야와의 ‘통섭’을 통해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학계 양상의 근원을 찾기 위하여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는 <경학(經學)에서 철학으로 그리고 어디로? - 동아시아, 근대 전환기 학술의 양상>이라는 대주제 아래 총 3회에 걸친 연속 학술회의를 기획했다. 이번 기획 학술회의의 목적은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학문 방법이 언제 어떻게 끝이 나고, 근대적인 학문 방법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밝히는데 있다.

그 첫걸음이었던 지난 해 5월의 춘계 학술회의에서는 근대 전환기 동아시아의 학술 개념에 대해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근대 전환기에 서양으로부터 유입된 학문이 한국과 중국의 사회와 학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도 시도되었다. 지난 해 9월에 있었던 추계 학술회의에서는 서구를 접한 유가 지식인들의 학문 방식의 변화, 즉 경학에서 철학적 사유로 넘어가게 되는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근대의 중국과 일본에 전래된 과학적 사고가 종교, 실학 등의 분야에 새로운 담론을 형성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서구의 과학적 학문 방식을 수용한 동아시아의 학계는 현대에 이르러 분과학문의 발달로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었다. 이러한 학문적 방법은 분야마다 나름의 성역을 설정하고 통섭, 융복합의 길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동계 학술회의는 유교문화연구소에서 기획한 연례 학술회의의 마지막 장으로서 전통적 학문 방법에서 근대적 학문 방법으로의 전환을 살피으로써 동아시아 학계의 단절된 시기를 메우고 학계 간 통섭, 융복합의 길을 여는 바탕을 제시하려 한다. 또한 서구의 학문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사상체계와 융합을 시도했던 근대 전환기 동아시아인들의 모습을 통해, 지금의 우리 학계를 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5년 1월 23일 (금) 13:30~18:00
- 장소 :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5층 31512호

□ 별첨

1. 2015년 동계 학술회의 일정표
2. 발표논문 요약문

▣ 등 록 13:00~13:30

▣ 개회식 13:30~13:40

사회: 심승우(한양대학교)

개회사: 신정근(유교문화연구소장)

▣ 주제발표

13:40~14:10 ○ 근대전환기 중국철학계의 연구 동향과 특징
—발표 : 이철승 (조선대학교)

14:10~14:40 ○ 중국근대철학의 정초를 위한 시론
—발표 : 송인재 (한림대학교)

14:40~15:10 ○ 학술을 통해 본 중국 근대 민족주의의 형성
—발표 : 모영환 (성균관대학교)

15:10~15:30 휴 식

15:30~16:00 ○ 근대 중국에서의 제자학의 흥기와 그 성격
—발표 : 김현주 (용인대학교)

16:00~16:30 ○ 『장자』 학문의 개방적 특성과 다층적 해석 가능성
—발표 : 이시우 (대전대학교)

16:30~17:00 ○ 유교사의 시야에서 본 조선후기 실학의 학술사적 의의
—발표 : 이봉규 (인하대학교)

17:00~17:20 휴 식

▣ 종합토론 17:20~17:50

▣ 폐 회 식 17:50

▣ 만 찬 18:00

【 발표 1 】

근대전환기 중국철학계의 연구 동향과 특성

-유가철학과 마르크스주의철학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철승(조선대 철학과 교수)

개요

2014년 9월 24일, 공자 탄생 2565주년을 기념하여 국제유학연합회가 주관하는 국제 학술대회 개막식 연설에서 중국공산당 총서기이자 국가 주석인 습근평(習近平: 시진핑)은 마르크스주의의 원리와 유가철학의 유기적인 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습근평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 중국의 지도부가 국가의 부강, 민족의 진흥, 인민의 행복이라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구현하기 위해 ‘중국의 꿈’을 강조하며, 중국공산당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21년의 소강사회의 완성과 신중국 성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의 대동사회의 건설이라는 목표에 부응하고자 하는 메시지이다.

이처럼 전통의 유가철학과 19세기에 출현하여 20세기 전반기에 중국에 확산된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유기적인 결합은 현재 중국사상계의 중심 사조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과학’과 ‘민주’의 중요성이 증가하던 ‘5·4 신문화 운동’ 기간의 중국사상계에서는 유가철학을 봉건주의의 이데올로기로 여기는 풍조가 만연하였다. 이 무렵 유가철학의 효시인 공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타도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1917년 불세비키 혁명의 세례를 받은 일부의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유가철학은 ‘시대정신의 정화’가 아니라, 퇴출되어야 할 낡은 사조로 여겨졌다. 이것은 이 무렵 중국에서 유행한 마르크스주의가 변증법적 유물론보다 역사적 유물론이 대세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철학의 연구가 심화되고 확대됨에 따라 마르크스주의철학과 유가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철학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일부의 연구자들은 유가철학의 내용 가운데 계승할 것과 비판할 것을 구분하였다. 그들은 계승할 유가철학의 내용을 마르크스주의철학과 결합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가철학의 내용은 무신론, 기(氣)철학, 변증법적 사유, 선행후지(先行後知)관, 백성 중심 사상, 공동체정신, 공의로움 중시관 등이다. 그들은 이러한 전통의 유가철학과 마르크스주의철학을 긴밀하게 관계시키며, 중국식 마르크스주의철학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중국식 마르크스주의철학은 ‘5·4 신문화 운동’ 시기의 이대조(李大钊: 리다자오)로부터 시작하여 1930년대의 애사기(艾思奇 : 아이스치)와 모택동(毛澤東 : 마오쩌둥)에 의해 이론적 토대가 구축되었다.

유가철학과 마르크스주의철학의 유기적 결합을 추구하는 이러한 연구 풍토는 이후의 중국철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유가철학과 마르크스주의철학의 관계를 통해 근대전환기 중국철학계의 연구 동향과 특징을 규명하는 이 글은 현대 중국 지도부의 사상적 근거를 이해하는 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전개되는 중국철학계의 중요한 흐름을 파악하는 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중국근대철학의 정초를 위한 시론

송인재(한림대학교)

개요

한국에서 중국근대철학이라는 용어는 아직 생소하다. 20세기 초 서양철학의 틀을 참조해서 전통시대 중국의 정신적 자산을 편입시켜 구축한 중국철학을 받아들인 이후 근대 이래의 지식/사상자원을 철학의 범주에서 다루는 데 인식하거나 소홀했기 때문이다. 중국철학에서 근대의 빈약 또는 부재는 중국 또는 동아시아의 근대의 정신세계에 대한 반성적이고 객관적 이해가 매우 척박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근대의 빈약 또는 부재는 근대의 연속선상에 있는 현대를 적절하게 해석하고 개입할 수 있는 사유체계의 구축에 거대한 결격사유가 된다. 서양근현대철학과 중국전통철학을 참조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양자는 참조물일 뿐 직접적 연관을 가지는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근대의 빈약/부재에 처한 중국철학을 본 논문에서는 ‘중국 없는 중국철학’이라 부른다. ‘중국 없는 중국철학’이라는 문제의식은 전통문헌에만 주목하고 현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일본의 중국학을 비판하며 미조구치 유조가 제기한 ‘중국 없는 중국학’과 유사한 맥락에 있다. 다른 시대, 다른 지역의 철학에만 의존해서 불임 상태에 처한 상태를 지칭한다. 따라서 불임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대철학을 정초함으로써 자기시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형성하고 목소리를 내었던 유산들을 발견해서 그 시대의 철학으로 명명하고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지는 철학사를 구축해야한다. 그럴 때 중국철학은 서양철학과 중국(전통)철학이라는 참조체계와 전통적 경학과의 진정한 구별정립을 성취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중국근대철학을 정초하는 작업을 크게 두 방향에서 논의한다. 첫째 근대 중국의 지식자원에 대한 기존의 성과를 검토한다. 기존에 이 주제는 주로 개별 사상가, 지식인에 대한 연구, 사상사(론), 근대성 이론 등의 틀에서 연구되어 왔다. 그간 한국에서 진행된 소수의 중국근대철학 연구도 이러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성과들에서 포착되는 분과학문적 특성과 문제의식을 검토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발전적 극복의 길을 찾는다. 둘째 중국근대철학이라는 범주에서 포괄할 수 있는 지식자원과 중국근대철학을 구성하는 독자적인 주제 설정을 시도한다. 상술했듯이 중국근대철학의 정초는 향후 중국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근대에 대한 자기인식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작업이며 근대의 연장선상에 있는 현대에 개입하는 담론의 시공간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 발표 3 】

학술을 통해 본 중국 근대 민족주의의 형성

모영환(성균관대학교)

개요

근대전환기 한중일 동아시아 삼국의 학술양상은 시대적인 여건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전근대시기 동양학술의 발전사에서 가장 뒤쳐진 편이었던 일본은 근대 서양문물의 적극적인 수입으로 근대전환기 이후 동아시아 학술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실학과 개화사상 등으로 이어지던 자생적인 근대학술의 흐름이 외부적인 여건에 의해 단절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근대 이후의 학술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경우 근대 이전에는 동양사상의 원류라는 인식과 함께 오랜 시간에 걸친 동양사상의 종주의식으로 인해, 학술과 문화 및 사회가 큰 거리감 없이 혼재되어 이어졌다. 중국의 독특한 민족주의인 ‘중화주의’ 또한 이러한 양상의 부산물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중화주의’는 단순한 사상이나 주의의 범을 넘어, 중국의 학술과 문화 및 사회를 포괄하는 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전환기의 위기의식은 ‘중화주의’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는 한편으로 학술과 문화 및 사회를 구분하여 심각하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독특한 민족주의가 근대전환기라는 시대적 여건에서 보여준 몇 가지 특징들을 전제하고, 그 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청대 중기 학술계의 민족주의적 양상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은 이민족인 만주족이 세운 국가이다. 따라서 청대 학술계 또한 ‘중화주의’에 대해 그 주체와 영향력 등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청대에 잇따라 일어났던 필화사건과 청 조정의 대응 역시 이러한 고민의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청대 학술계의 큰 성과인 『사고전서』의 편찬 또한 이러한 고민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특히 『사고전서』에 수록된 각 서적의 해설문격인 『사고제요』에는 당시 학술계의 이념과 연구방법 등이 잘 드러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고제요』 기술의 취지와 논조 등을 통해 청대 중기 중국 민족주의의 몇 가지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양상들은 시간이 흘러 근대전환기에 한층 치열한 모습으로 나타난 중국 민족주의의 단초이자 기원이라 할 수 있다.

【 발표 4 】

근대 중국에서의 제자학의 흥기와 그 성격

김현주(용인대학교)

개요

춘추전국시대에 활동했던 선진제자들의 저작과 그 사상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제자학"은 유학이 관학으로서의 정통성을 획득하게 됨에 따라 쇠퇴하였다가, 명말 청초 이후 유학의 위기를 계기로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이전까지의 제자학은 유가경전을 해석하거나 합리화하기 위한 보조적 위치에 머물렀을 따름이었으나, 청말 이후 서학의 유입과 청조의 붕괴 등을 배경으로 유학과 동등한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근대 제자학의 출현은 변화를 필요로 하는 근대중국이라는 역사적 상황과 그로 인한 "시대적 사명"에 따른 것이다. 즉 구망도존(救亡圖存)과 근대국가의 건설이라는 과제를 이루기 위해 서구로부터 새로운 사상과 가치를 수용하여 그것을 전통적 가치와 결합시키고자 한 근대중국의 지식인들의 시도를 통해 새로운 성격의 제자학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곧 주변에서 중심으로, "고거지학"에서 "의리지학"으로, 그리고 "서학중원설"에서 "중서조화론"으로 제자학의 성격이 전환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 발표 5 】

『장자』 학문의 개방적 특성과 다층적 해석 가능성

이시우(대전대학교)

개요

유가 경전이든 도가 경전이든 그것들은 경전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진공 속에서 신성의 권위를 가졌다. 따라서 고대의 해석학으로 볼 수 있는 훈고학도 진공화된 지식틀 속에서 불변의 가치가 부여된 경전 자구의 원의를 단순히 해석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현대적 의미에서 경전을 해석한다는 것은 경전의 원의를 현재의 상황과 맥락 속에서 해석의 지평을 다른 각도로 넓혀 하나의 새로운 의미를 텍스트에 주입하는 과정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동아시아 전환기(춘추-전국, 또는 당대-송대, 명대-청대, 전근대-근대 등)의 학문 양상”을 살피는 학술대회 주제에 맞춰)) 『장자』 텍스트가 지니는 학문적 특징을 다층적 해석 가능성이라는 맥락에서 살핀다. 『장자』가 지니는 학문적 성격은 텍스트 자체가 아니라 사실상 정해진 텍스트를 바라보고 풀이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성현영과 같은 도사라면 『장자』가 도가서가 될 수 있다. 三敎合一을 꿈꿨던 임희일이라면 불가, 유가, 도가가 모두 녹아든 종합서가 될 수 있다. 장자를 전공하고 요즘 인기 많은 강신주라면 분석철학서가 될 수 있다. 로버트 앨리슨이라면 치유철학서가 될 수 있다. 오쇼라면 수양서가 될 수 있다.

이 처럼 『장자』는 워낙 다양한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는 텍스트이다. 학문적으로는 이러한 『장자』의 해석 다양성과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크게 “『장자』 연구의 학문적 경향” 혹은 “『장자』 판본의 학문적 성격”의 두 갈래로 진행해 볼 수 있다.

필자는 『장자』 연구의 학문적 경향의 맥락에서 『장자』 텍스트가 지닌 개방성적 특성과 다층적 해석의 가능성을 「『장자』 학문의 개방적 특성과 다층적 해석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검토할 것이다.

특히 『장자』가 근대 학문에서 말하는 학의 지위를 지닐 수 있는 가능성을 「내편」 7편에서 주요한 테마 7개를 뽑아서 이것을 징검다리 삼아 장자가 사유한 넓은 학문의 물줄기를 건너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필자는 단순히 『장자』의 원문을 나열하고 해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근대의 학문적 특징과 연결시키고 그 의미를 나아가 현시대의 학문적 담론 안으로 끌어들이어 다양한 해석을 시도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해석서를 비교할 것이다. 그것은 『장자』의 해석서를 말하면 으레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곽주성소, 즉 곽상의 주와 성영현의 소, 그리고 시대를 가로질러 중국 근대와 전근대의 경계에서 학문의 근대적 자양분을 먹고 자란 왕선겸의 주석을 통해 『장자』의 해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비교를 통해 그 스펙트럼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해석상의 차이를 비교하여 드러내는 차원이 아니다. 비교와 해석을 통해 필자가 문체 삼고 있는 『장자』의 근대 학문의 성격, 나아가 탈근대적 성격의 두 모습을 함께 밝힘으로써 『장자』 텍스트를 경학에서 학문(철학)으로 횡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 발표 6 】

유교사의 시야에서 본 조선후기 실학의 학술사적 의의

이봉규(인하대학교)

개요

‘실학’의 용어로 성호학과와 북학과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사상적 성찰과 사회적 실천을 특징지우는 연구가 어떤 유의미성이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유교 또는 유교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 이해가 필요하다. ‘실학’의 학문적 유의미성을 묻는 작업은 곧 유교를 학문으로서 재성찰하는 작업의 한 부분이 된다. 유교를 재학문화하는 것은 현시대의 한 학문적 과제이다. 필자는 유교의 학문적 유의미성을 찾아 들어가는 한 과정으로서 ‘실학’을 재론하려고 한다.

논의는 유교를 쟁탈성 해소를 위한 사상과 실천 운동으로 이해하는 필자의 시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정인보, 최익한, 김용섭, 이영훈, 김상준 등 몇 가지 근대 이후 실학론을 재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명청교체기 한국, 중국, 일본의 사상적 변화에서 발견되는 특색을 통해 조선후기 실학의 성격과 의의를 재성찰할 것이다.

관련 필자 논문

- 「인륜 : 쟁탈성 해소를 위한 유교적 구성」, 『泰東古典研究』 31, 한림대학부설 태동고전연구소, 2013.
- 「실학과 예학-연구사에 대한 회고와 전망」, 『韓國實學思想研究 1』(哲學·歷史學篇),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혜안, 2006. 12.
- 「명청교체기 思想變動으로부터 본 다산학의 성격」, 『다산학』 25, 다산학술문화재단, 2014.